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월간지



VOLUME 296 | FEBRUARY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2월호 / 통권 296호

발행일 2022년 2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96 | FEBRUARY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정의(正義)를 향한 길
전례와 생활	10 미사 바로 알기 (4) - 말씀의 전례
	14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18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2 "한국 순교자전(傳)"을 새로 쓰며
신앙과 삶	26 그리운 영성체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48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News & Views	58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아기 예수님의 성전봉헌(아기 예수를 봉헌하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를 받으려 하는 시메온)

출처 :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동방박사의 방문(마태 2.1-2) | 출처 :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장군의 위세가 계속되고, 코로나19 팬더믹도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소한(小寒), 대한(大寒)도 지났고, 이제 입춘(立春)과 우수(雨水)가 다가옵니다. 어느덧 겨울은 그 흔적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고, 코로나19에서도 벗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는다. 겨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그러나 봄은 꽃을 피우며 세상에 자신을 활짝 드러낸다. 그러나 꽃을 피운 것은 봄뿐만이 아니다. 겨울도 내내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하고 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속에 묻혀 한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내고 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이진희, 「광야를 읽다」, 두란노서원, P.187)

지난달에 읽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것은 한겨울 몸을 웅크리고, 추운 날씨를 견뎌내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도 겨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좀 더 버티는 것은 살아내기 위함이고,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더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올 것을 느끼기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물론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난 2년 동안 웃기는커녕 미소조차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코로나 블루(Corona Blue)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시편 130,1-2)라고 노래하는 시편 저자처럼, ‘깊은 곳’에 빠져 어찌해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시 쓰린 시간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희망의 날이 움터 올 것입니다. 희미한 빛, 미미한 희망이라도 꼭 붙드십시오. 그 작은 빛과 희망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통로이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쉽게 소러지지 않습니다.

「가톨릭직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명랑함을 감염시키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우식 신대리사목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정의(正義)를 향한 길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정의(正義)란?

베드로의 둘째 서간 3장을
읽어보세요

정의란 보통 요즘 사회에서 거론되는 공정(公正)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이 공동체의 질서라면 정의는 이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그리스도교 사추덕(四樞德)의 하나입니다. 사추덕(四樞德)은 윤리신학에서 말하는 4가지 중요한 덕으로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덕을 그 근원(根源)에 따라 구별하여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룩할 수 있는 자연덕과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주어지는 초자연덕으로 나누었습니다. 4추덕은 자연덕에 속하는 것으로 지덕(智德, prudence), 의덕(義德, justice), 용덕(勇德, force), 절덕(節德, temperance)을 가리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의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루소는 정의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을 팔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것을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니체가 말한 대로 “힘이 곧 정의다”라는 말은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이 힘을 바탕으로 정의라는 가면을 쓴 채 활개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성경에서의 정의는?

아모소서 6장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도 정의는 하나의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약탈, 억압, 불의한 재판 등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 편에 선 자를 의인이라 부르고 정의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한에서만 실현됩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정의는 무엇보다 약자를 돌보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레위 24,22) 죄를 사면하거나 형벌을 가할 때도 종족이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의로운 재판을 하고 가난한 이와 불쌍한 이의 권리를 지켜 주어라”(잠언 31,9) 벌을 받거나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던지 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불쌍한 부류인 고아나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3. 교회에서의 사회정의란?

야고보 서간 3장을
읽어보세요

현세에서 특히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사회정의입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현대 사회에서 더 필요한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정의 문제는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노동헌장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교황 요한 23세의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는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인간의 평등성과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바오로 6세는 1971년 노동헌장 반포 70주년을 맞아 “민족들

의 발전 촉진에 관한 회칙”을 반포함으로써, 세계 인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빈부의 격차를 없애고 한 형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기인합니다. 사회정의란 한마디로 인간이 동등한 품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모든 민족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교회의 정의 실천

신명기 16장을 읽어보세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해야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동등한 품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행복한 생활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종교, 연령, 계급, 성의 차별 없이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세계의 부정과 불의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권력과 부의 특권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상황들을 공동선(公同善)을 추구하는 복음화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은 성서와 모든 교회 문헌의 핵심사상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교회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언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권의 수호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목헌장 76).

백실룸(라틴어: Vexillum)

고대 로마 군단에서는 군기(軍旗)를 라틴어로 백실리움(vexillum, 원래 발음은 백실룸)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릇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표지(標識)가 되는 국기가 있듯이 군대에도 군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군기는 군대의 정신적인 상징이므로 기수가 늘 앞장서서 들고 갑니다. 전쟁에서 비록 기수는 쓰러지더라도 군기가 수호되어야 합니다. 군기를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레지오 마리아에서는 백실리움을 단기(團旗)라고 부릅니다. 레지오의 단기는 회합에서 사용하는 탁자용(높이 약 32cm)과 행렬이나 아치에스 행사 때 사용되는 대형 거동용(높이 약 2m)으로 구분됩니다. 단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회합에서 레지오 선서를 할 때나 아치에스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레지오 단기의 깃대를 손으로 잡도록 합니다.

레지오의 단기는 로마군단의 군기를 본뜬 것입니다. 그 군기는 독수리 형상 아래에 'Legio Romae'(레지오 로마)라는 표장과 함께 황제의 초상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레지오는 그 군기를 그리스도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즉 독수리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로, 'Legio Romae'는 'Legio mariae'로, 황제의 초상은 성모님의 초상(기적의 메달모형)으로 변형시켰습니다.

표장과 성모님 초상 사이에는 장미와 백합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깃대는 지구본 위에 세워져 있고 지구본 아래쪽은 네모진 받침대가 있어 단기를 탁자 위에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의 전체적인 구도는 성령께서 성모 마리아와 레지오 단원들을 통해 활동하시므로 지구의 모든 인류를 차지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쁘레시디움과 각 평의회에도 고유한 기(旗)가 있는데 레지오의 단기와는 달리 천으로 만든 깃발 형태입니다.쁘레시디움 기나 꾸리아 기를 뿌레시디움 단기, 꾸리아 단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성령을 표상하는 붉은색이나 성모님의 색깔인 푸른색으로 만드는데 맨 위에는 레지오 마리아라고 새깁니다. 그 아래에는 뿌레시디움이나 평의회 명칭을 기입하고, 맨 아래에는 교구와 성당 이름을 명시합니다.

옛세라에 있는 그림을 보면 무수히 많은 레지오 단원들의 맨 앞 오른쪽에는 기수가 비둘기 모형의 백실리움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푸른 천 바탕의 방패형 깃발에 라틴어로 레지오 마리아라고 새겨진 깃대를 들고 있습니다.

레지오의 단기는 레지오 마리아를 표상하므로 레지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제반 양식에는 반드시 백실리움의 표장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레지오의 단기와 각 뿌레시디움 기나 평의회 기를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 최경용, 교본 목차에 따른 레지오 마리아 훈화집(가톨릭출판사, 2004), 제27장 레지오의 단기(229-231쪽)



미사 바로 알기 (4) - 말씀의 전례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시작 예식’에서 합당하게 미사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겸손한 태도로 하느님께 자비를 청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의 전례’에서는 겸손하게 당신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 삶의 규범을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미사 전례의 두 기둥

미사 전례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그것입니다. 자칫 말씀 전례를 성찬 전례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바로잡고자 성찬 전례(Liturgia eucharistica)의 예비 역할 정도로 여겨졌던 미사 전반부에 ‘말씀 전례(Liturgia verbi)’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성찬 전례와 밀접히 결합되어 오직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위에 맞도록 오랫동안 사라졌던 독서대를 복원하였습니다. 이로써 제대에서 성직자가 혼자 독서와 복음을 읽던 것이, 이제는 독서대에서 “독서자가 독서를 하고, 부제 또는 주례자가 아닌 다른 사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59항). 성찬의 전례를 이루는 성체와 성혈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이라면, 말씀의 전례 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 전례 개정 작업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함께 지난 400년 동안 이어져 온 로마 가톨릭 전례의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 하나는 성경의 보화를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더욱 풍성한 식탁을 신자들에게 마련하여 주도록 성서의 보고를 더 활짝 열어, 일정한 햇수 안에 성서의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백성에게 봉독되어야 한다.”(「전례 헌장」 51항)

공의회는 이 같은 선언을 통해 미사 독서 체계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개정 작업을 위한 이런 기준은 미사 독서 목록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목적 목표로 구체화 됩니다. “전례주년 전체에, 특히 부활 사순 대림 시기 독서의 구체적인 선택과 배정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을 차츰 깊게 하고 구원 역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갖는다.”(「미사 독서 목록 지침」 60항)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편집된 「미사 독서 목록」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 역사의 주요한 사건들을 말씀의 전례 안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신자들이 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성찬례 거행을 통해 재현되는 파스카 신비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미사 독서 목록 지침」 61항 참조).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

성경은 탈무드같이 구전되는 유대인의 교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역사 안에서 인간의 손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권은 인간 저자의 문체, 특성, 신학적 관점, 사목적 관심 등을 반영합니다. ‘영감(靈感, inspiration)’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말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2티모 3,16), 하느님은 인간 저자들의 말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숨결을 뱉어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마치 예

수 그리스도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과정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일종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로 비유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계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 3일을 꼬박 준비했습니다(탈출 19,9-11 참조). 마찬가지로 미사에서 우리는 시작 예식을 통해 하느님 말씀과 만나는 거룩한 순간을 준비합니다. 성호경, 고백의 기도, 자비송, 대영광송은 그런 준비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십자 성호를 새기고, 하느님 현존 앞에 합당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고, 본인의 영광을 노래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과 듣는 이들 사이에 살아있고 진지한 인격적인 만남이 생겨납니다.

독서자의 역할

말씀 전례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독서자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독서자는 단순히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사에서 주님은 독서자를 당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므로(「전례 헌장」 7항) 독서자는 하느님 백성을 향한 말씀 선포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느님 말씀을 봉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예와 특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독서자들은, 먼저 영적으로 성경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경 교육과 말씀 전례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전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더불어 기술적으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당한 기술을 연습하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전례의 의미와 가치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신비와 영적 양육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말씀 전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대화의 장으로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전례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언제나 살아있고 힘 있는 말씀이 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길러주고 튼튼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므로써 당신께서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을 알려주시고, 이를 듣는 우리는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의 구원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은 우리에게 활짝 열리지만, 은총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각자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㉞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발렌티노

St. Valentine (축일: 2월 14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항상 성모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유명한 제목이 바로 ‘살베 레지나Salve Regina’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환호하며 맞이하며) 만세, 여왕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만나서 라틴어로 인사를 나눌 때에 ‘살베Salve’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현재 이탈리아어에서도 정중히 서로를 반갑게 맞이할 때의 첫 인사말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어질 때의 인사말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발레Vale’였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 형용사로 ‘발렌스Valens’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발렌스’는 그 뜻이 영어로 ‘healthy, strong’입니다. 곧, ‘건강/강건한’이라는 형용사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라틴어로는 서로 만날 때는 반갑게 환영하면서 ‘살베Salve’를, 서로 마무리하면서 헤어질 때 서로가 영육 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면서 ‘발레Vale’라고 인사하며 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 발렌티노 주교의 이름도 이 라틴어 형용사의 의미와 동일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제국이 통치하던 197년에 21세라는 나이로 이탈리아 테르니교구의 주교로 성품되었습니다. 그는 테르니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창설자이자, 그 도시의 첫 주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그리스도교 간에 박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 2세 황제가 발렌티노 주교를 초대하여 그리스도교를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렌티노 성



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그를 처형하려고 했으나, 그 대신에 그를 어느 귀족 가문이 지키도록 하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정한 한 주님만을 섬기려는 충절이 바로 그의 영적 ‘강건함/건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사랑했다고 전해지는 발렌티노 성인은, 장미를 약혼한 커플들에게 선물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축복해주는 주교였다고 합니다. 또한 말다툼을 하는 두 젊은이들에게 장미 한 송이를 주면서 이를 서로의 손을 맞잡고 쥐고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장미 한 송이와 맞잡은 그 젊은 커플이 곧바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발렌티노 주교는 탁월한 회개의 설교자였고, 이웃의 필요에 대단히 관대한 사람이었으며,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97세에 클라우디오 2세 황제의 후계자인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감옥생활을 하였습니다. 273년 2월 14일 밤에 푸리우스 플라치두스Furius Placidus라는 이름의 한 군인에 의해 참수를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해는 테르니 주교좌 바실리카에 옮겨 모셔졌고, 1605년 오노라티 주교가 그의 시신을 하나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의 상반신과 처참하게 처형된 두개골이 발렌티노 주교가 참수형으로 순교했음을 증명해주었다고 합니다.

현 시대는 이런 애절하고 간절하며, 한 영혼만을 끝까지 사랑할 정도로 강건한 기개를 가진 이들이 아주 희박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 집니다. 더욱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를 더욱더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월 14일 성 발렌티노 주교의 기사도적 사랑을 빗대어, 젊은 여인이 자신을 흠모하고 시종을 들 기사를 선택하는 풍습에서 유래된 밸런타인데이가, 그저 그냥 상업화된 초콜릿 교환의 날로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와 하나 되는 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날, 미래의 일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영원한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로마 4, 25).” ☪



성서 못자리

성서못자리 소개

<성서못자리>는 1989년부터 시작된 서울대교구 사목국 소속 공인 성경교육기관으로서, 사제들의 강의와 함께 3년간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 신앙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3년 과정 이수 후에는 서울대교구장 명의의 성서교육 봉사자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공부방식과 구성

- 3년 6학기. 주1회 강의(1학기 15회), 강사신부의 강의와 나눔 병행(이스라엘 역사는 강의만)
- 입문부터 5권까지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3년 과정

과목	강의내용	시간
입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	2시간 강의
1권	그리스도 공동체들과 선교사들의 복음선포	1시간 반 강의
2권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 / 종교의식·예배 /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사용한 구약성경	
3권	역사의 예수 / 사도 바오로 / 바오로의 서간들	
4권	공관복음 문제 / 마르코 복음서 / 마태오 복음서	30분 나눔
5권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 요한 복음서 / 요한 묵시록	

일정 및 참여 방법(2022년 전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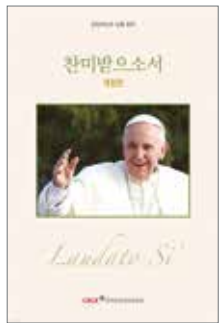
- 모집 : 2022년 2월 14일- 3월 1일
- 문의 : 성서못자리 사무실 (02-727-2379)
- 접수 : 인터넷 접수만 진행. 수강료 납부는 온라인으로(<http://samok.or.kr/bibleseedbed/>)
- ※ 성서 못자리는 방역규정과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침 강화 시 비대면 수업(Zoom)으로 전환합니다.

강좌	학기(주 1회 수업)	수업시간	수강료
명동 정기강좌 (명동)	2022. 3. 7. - 6. 13 (15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8만원
나눔터 학교 (졸업생과 봉사자만)			7만원
직장인 성서못자리 (명동)	2022. 3. 9. - 6. 15 (1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만원
청년 성서못자리 (명동) ※ 35세 이하 청년만			5만원
미주 온라인 성서못자리 (온라인 수업)	2022. 3. 7. - 6. 13 (15주간 매주 화목)	동부 - 화(저녁 7시) 서부 - 목(저녁 8시)	8만원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1년 과정)	2022. 3. 7. - 6. 13	동영상 강의 이수 (학기당 20회)	10만원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재난 영화의 이야기처럼 급박하게 나타난다기보다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예전보다 따뜻한 겨울과 길어지는 여름 폭염이 문제라고는 느끼지만 당장 눈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기에, 사람들은 이 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 문제에 익숙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생태 위기는 전쟁보다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려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듯이, 생태적 회심은 지구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통렬하게 자각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회칙 1장은 공동의 집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쓰레기 문제

지구에는 본래 불필요해서 내버릴 것, 즉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서 모든 것은 서로를 살리고 유지하는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따른 대량 폐기의 구조 안에서 쓰레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21항). 그 결과 땅과 지하수 오염이 악화되고, 쓰레기를 처분하기 위한 장소의 수요와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암시장이 번성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후진국에 내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편의를 위해 쓰이지만, 그것을 처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플라스틱의 평균 사용시간은 25분인데, 분해까지 걸리는 시간은 100~500년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해되기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에 매립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은 많은 해양 동물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 생물의 몸속에 쌓여 먹이사슬을 타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의 문제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구의 생명줄과 같은 물이 지금 부족합니다. 기후변화, 강과 바다의 오염, 일부 지역의 사막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질도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산업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과 산성비에 의해 오염된 물은 인간과 다른 동식물에게 유해합니다. 심각한 물 부족과 수질의 악화는 식품 가격과 물 사용에 의존하는 상품들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20세기는 석유가 분쟁의 원인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물 분쟁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특히 물을 민영화하려는 추세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다국적 수자원 기업들이 물 시장 확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며 물의 사유화를 확산시킨 결과, 물은 이제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상품’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물 공급을 더 이상 공공서비스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의 원리에 따라 분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에 의한 민영화가 이루어지자 가격 인상은 물론이고 물의 이용과 접근에서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회칙은 물의 공공성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입니다”(30항).

기후변화

미세먼지나 쓰레기와 물의 오염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 오르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심각할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구의 기후 조건이 변화하는 것과 일시적인 날씨의 변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과 그날의 기분이 변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이지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한두 해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30년 이상 관측한 날씨의 평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매우 확실한 과학적 견해들은 우리가 현재 기후체계의 심상치 않은 온난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23항)”

물론 자연적인 기온상승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인위적인 요인, 즉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표면에 반사된 햇빛의 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온도는 자연적인 정도를 넘어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은 이러한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이 발생하는 당뇨병처럼 지구 온난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염과 혹한, 극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집니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큰 파괴력을 지닌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지역의 도시와 섬들은 수몰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기온상승이 가뭄과 맞물려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식량 생산성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험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 변화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편한 진실’이 어찌하면 더 이상 불편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생태 위기의 현실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계속 직시하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생태적 회심은 ‘낭만주의’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걱정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 순교자전(傳)”을 새로 쓰며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한국교회는 현재 103위 성인, 124위 복자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133위 하느님의 종, 81위 근현대 신앙의 증인, 덕원의 순교자 베네딕토회 38위, 그리고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순교자, 복자, 성인을 모시고 있지만 정작 온전한 한국성인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순교록’과 ‘성인전’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소개할 순교자전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 순교자 전기를 다루면서 한국 교회사와 연결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호에서는 순교자전을 바탕으로 시복 시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순교, 시복, 시성의 개념

순교는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위주치명(爲主致命), 곧 “주님

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순교의 사실이 인정되면, “순교자 측과 박해자 측의 질료적, 형상적 순교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료적 순교란 박해자의 무력으로 순교자가 실제로 죽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형상적 순교란 순교자가 신앙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교한 것을 가리킵니다. 시복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느님의 종’에 대한 순교사실을 증명시켜야 하고, 그분들의 덕행도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시켜야 순교자로 인정됩니다.

시복(諡福, beatificatio)은 “복되게 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시복 제도가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정착된 것은 15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시복된 이들은 시성되기 전까지 지역교회에서 제한적인 공경을 허락하게 됩니다. 124위 복자들은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든지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시성(諡聖)이란 말은 그리스어 카논(κανων,

막대기, 자, 규범, 기준)에서 유래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함[聖性]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의 모범을 추대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법적으로 ‘복자’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복 후보자를 ‘하느님의 종(servus Dei)’이라 부릅니다.

교회는 초기 박해시기부터 순교자들을 공경하였습니다. 4세기 이후 박해시기가 끝나자, 순교자 외에 영웅적 덕행을 실천한 분들을 성인으로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복자, 성인으로 추대하는 후보자인 ‘하느님의 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순교자(martyr)”입니다.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이나 하느님께 연관된 덕행 때문에 의지적 죽음을 감수한 분들을 가리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성인, 복자, 하느님의 종 모두가 순교자인 이 부류에 속합니다. 단 한 분만 예외인데, 성무활동을 하다가 선종하신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은 바로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둘째 “증거자(confessor)”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처럼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을 증거한 분들도 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진실한 희생과 봉헌을 하는 신자들도 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성인처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제나 신자들도 복자로 추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와 증거자들을 공정하게 선별하여 교회법적인 절차에 따라 ‘복자’, ‘성인’으로 선포하고 그 모범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성이 되기까지는 분명한 요건이 채워져야 하는데, 증거자의 경우(예컨대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 대상자의 영웅적 덕행이 증명되어야 하고, 기적이거나 그에 대한 좋은 평판, 사적인 공경이 생겨나야 합니다. 또 순교자의 경우 신앙 때문에 순교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기적이거나 표징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교사실과 덕행이 확인되어야 ‘복자’가 될 수 있고, 시복된 다음에 또 기적이 있어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성되기까지의 간단한 절차를 정리해봅시다.

2. 교회법적인 절차

중세 초에는 주교들에 의하여 시성이 진행되다가, 점차 교황이 주관하는 제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1181년 알렉산데르 3세 교황때 교회의 공적 공경의 허락을 성좌에 유보시켰습니다. 우르바노 8세 교황, 베네딕토 14세 교황 때 시복, 시성과 관련된 법규가 완성되고, 1917년 구 교회법전에 수록되었습니다. 과

거에는 예부성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시성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새 교회법(1983)에는 시성 절차가 매우 간략하게 바뀌어졌는데, 시복시성 특별법을 통해 세부적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새 교회법에 의하면, 실질적인 심사는 교구(교구장 예비심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모든 자료는 시성성으로 이관되어 조사하게 됩니다.

순교자에 대한 시복·시성 과정은 순교의 증명 방식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구두 진술에(순교자에 대한 증언) 의한 방식입니다. 이는 “최근의 안건”으로서, 한국의 103위 성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례로 복자-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재판록이 바로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병인치명사적 등입니다.

둘째로 기록된 자료에 의한 방식입니다. 이는 “옛날의 안건”으로서, 순교나 덕행에 대한 증명이 오직 기록에 의존합니다. 124위 시복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순교 사실이 예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없으므로 “옛날의 안건”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의 103위 성인 탄생은 옛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주도하여 처음에는 기해-병오박

해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순교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해일기』로 시작된 이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증인들의 재판기록 등을 모두 보완하여 1925년에 7월 5일 79위 복자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병인박해 순교자들 가운데 24위의 복자를 얻었고, 교황청의 특별한 배려로 1984년 한국천주교회의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103위 복자가 모두 시성이 되었습니다. 본래 시복단계에서 ‘하느님 종’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적 심사를 따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인 경우 순교 자체를 하나의 기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순교복자들은 처음에 기적 심사를 관면받게 됩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엄격한 기적 심사가 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당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개별적인 기적 심사를 관면해 주셨습니다. 이 성인 가운데는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하여 9위의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 정하상 바오로와 같은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초기 교회 박해 시기의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여, 신유박해(1801)를 중심으로 다시 순교자들의 명단을 보완하여 124위 ‘하느님의 종’의 시복을 추진하였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문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식이 열렸습니다. 이들 ‘복자’ 가운데는 1840년 당고개에서 순교하

신 이성례 마리아(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부인이자,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성례 마리아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젖먹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한번 배교했다는 이유로 시복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시복-시성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순교자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순교가 정말 복자가 되고 성인이 되기 충분했었음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그 초기부터 『성년광익(聖年廣益)』이라는 매일의 성인전을 통해서 날마다 성인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호성인이나 세례명에 해당하는 성인을 본받는 것이 신자된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세례명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또 다른 성인들의 삶과 순교를 통해 신앙을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자와 죽은 이들을 넘나드는 “성인들의 통공”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실천하는 길도 될 것입니다. 다음 번 호부터 한국 초기 순교자부터 순교자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운 영성체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김베드로 형제는 젊은 시절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산을 다니던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동네 주변을 30분 정도 걷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건강할 때는 1년 내내 매일 새벽 미사를 참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건강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매일 평일 미사참례는 중단하였고, 겨우 주일미사에만 참례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전례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움직임도 힘겨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그에게 미사 봉헌의 기쁨은 사라지고 점점 고통과 싸우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아내는 베드로에게 코로나 시국이니 평화방송 TV 미사를 이용하라고 하면서 은총은 같다고 조언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사 중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만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순간이었고 간절한 청원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영적 갈망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영하지 못하면서 '신령성체의 교리'로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Question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미사참례에 대한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문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1)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과 열망으로 기도한다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 신령성체(信領聖體)

신령성체는 지극한 성체 신심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성체를 모시지 않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다.

신령성체는 우리가 여행 중이거나 병상에 있거나 혹은 이동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경우, 그래서 미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성체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신령성체에는 그만큼 ‘간절함’이 함께한다.

[박도식 신부 상식교리 116.]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신령성체의 기도(Act of Spiritual Communion Prayer)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리오 (St. Alphonsus Maria de Liguori)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 참고할 사이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신령성체를 아시나요?」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

고전 음악을 듣다

가브리엘 포레 - 레퀴엠: 죽음의 자장가?

조병선 바오로_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 인간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 세상과 평안하게 미소로 작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다. 가브리엘 포레(Gabriel Urbain Fauré, 1845-1924)는 1885년부터 1887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하고, 1888년 절친한 친구였던 건축가 르슈파셰(Joseph Lesoufaché)마저도 떠나자, 레퀴엠을 작곡하였다. 1887-88년 사이에 전 5곡의 레퀴엠을 완성하였다. 아직 ‘오페르토리움(Offertorium)’과 ‘리베라 메(Libera me)’가 아직 추가되지 않은 최초의 버전이었다. 그는 1888년 1월 16일 파리 마들렌 성당에서의 친구 르슈파셰의 장례미사 때, 이 최초 버전으로 직접 지휘까지 하였다. 그러나 장례미사를 마친 신부가 한숨을 쉬며 합창단장 포레에게 물었다. “오늘 이상한 레퀴엠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실은 제가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포레의 레퀴엠은 처음부터 ‘이상한 작품’으로 취급당하였다. 보통의 레퀴엠과는 달리 최후의 심판과 지옥의 공포를 묘사한 ‘분노의 날(Dies Irae)’과 ‘라크 리모사’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포레는 1889-90년에 ‘호스티아스(Hostias)’를 포함하여 ‘오페르토리움’ 전체를 보완하고, 과거 1877년작 ‘리베라 메’를 추가하여 제2버전으로 1893년 마들렌 성당에서 다시 직접 지휘하며 초연하였다. 다만 이 때 마들렌 성당이 여성 가수를 허용하지 않는 전통에 따라 여성부를 보이소프라노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포레는 다시 전 7곡의 레퀴엠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이 세 번째 버전은 1900년의 파리만국박람회 기간 중 7월 12일 파리의 사요궁(Palais de Chaillot) 앞 트

Fauré: Requiem, Op. 48
Fauré: Cantique de Jean Racine, Op. 11

Conductors: Laurence Equilbey
Groups & Artists: Accentus, Sandrine Piau, Stéphane Degout, Orchestre National de France

Release Date: 27th Oct 2008

Length: 41:15

Catalogue No: V5137

Label: Naïve



레카데로(Trocadéro) 광장에서 초연되었다. 이렇게 3번에 걸쳐 완성된 레퀴엠은 1924년 마들렌 성당에서 진행된 포레의 장례식에서도 연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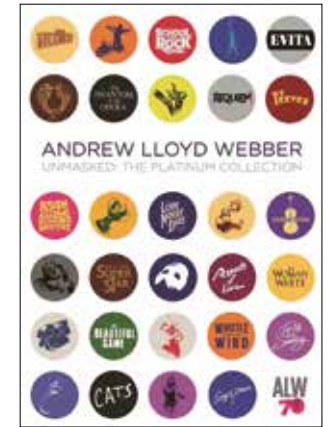
가브리엘 포레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격동의 시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답게 그의 음악은 드뷔시(1862-1918)와 라벨(1875-1937)에서 쇤베르크(1874-1951)에 이르는 근현대음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려서부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보인 포레는, 흔히 ‘에콜 니데르마이어(Ecole Niedermeyer)’라 불리는 ‘클래식·종교학교(École de Musique Classique et Religieuse)’에서 음악교육을 받았는데, 학교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음악 이외에도 그의 일생을 지배한 가톨릭정신을 함양하여 수많은 종교음악을 작곡하였다. 그 중 ‘레퀴엠(Requiem) d단조 Op.48’은 그의 종교음악의 백미로 꼽힌다. 제1곡 ‘인트로이트-키리에(Introit-Kyrie)’, 제2곡 ‘오페르토리움(Offertorium)’, 제3곡 ‘쌍투스(Sanctus)’, 제4곡 ‘피에 예수(Pie Jesu)’, 제5곡 ‘아누스 데이(Agnus Dei)’, 제6곡 ‘리베라 메(Libera Me)’, 제7곡 ‘인 파라디숨(In Paradisum)’의 7곡으로 구성되었다. ‘디에스 이레’에 대하여는 지난 호 생상스 편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어졌다. 포레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이를 초월한 마음의 평화를 그려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통상적인 ‘디에스 이레’를 빼고, 유별나게 ‘인 파라디숨(In Paradisum)’을 마지막 제7곡으로 넣었다. 그래서 이 곡은 ‘죽음의 자장가’라는 별명까지

지 얻게 되었는데, 1996년 파리 노트담 성당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영결식에서도 포레의 레퀴엠이 사용되었고 소프라노 바버라 헨드릭스(Barbara Hendricks)가 제 7곡을 불러 더 유명해졌다. 혼성4부 합창의 성악부와 2관 편성의 작은 관현악 편성으로, 현대의 종교음악의 트렌드 ‘영적 미니멀리즘’(고레츠키, 아보 파트 등)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 곡을 감상해보면, 레퀴엠답게 죽음의 불안과 영생의 축복이 섞여 등락하지 않고, 내내 평온한 흐름이 지속된다. 어찌보면 심심하기까지 하다. 왜 그런지 음악적 특징을 간략히 본다면, 우선 첫 곡의 제1부분에 제시된 주제선율·반주선율이 곡 전체(총7곡)에 응용되어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누스 데이’의 제3부분은 ‘인트로이트-키리에’의 제1부분이 변주되어 제시되었다가 다시 ‘아누스 데이’의 첫 6마디가 단3도 아래로 이조되어 회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곡은 1-6마디의 짧은 전주를 통해 마치 각 곡의 성스러운 가사를 대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듯하다. 각 곡의 성악선율도 대부분 순차진행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안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렇게 편안한 선율을 전개할 때도 전조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과 같은 색채감을 준다. 프랑스 음악의 특징인 색채감에 대하여 조금 설명한다면, 전조를 통해 3도, 4도, 6도 음정의 도약을 이루면서도, 증음정 또는 감음정도 맛깔스런 양념처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포레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장조·단조뿐만 아니라, 중세의 교회선법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번한 전타음, 지속음과 같은 비화성음의 사용이나 비화성음의 미해결 혹은 해결의 지연은 전통적인 기능화성에서 벗어나 인상주의적 색채의 화성에 대한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포레는 드뷔시나 라벨의 선구자로도 여겨진다. 또한 중지도 전통적인 아멘 중지의 변형인 이른바 ‘포레 중지’라 불리는 중지를 사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니멀리즘의 선구자로서 관현악을 소규모로 편성하였고, 팡파레 또는 도

**Unmasked: The Platinum Collection
Andrew Lloyd Webber**

Release Date: January 24, 2018
Duration: 02:33:42
Label: Verve
ASIN: B0795YSDLR
Number of discs: 4



입부에 필수적인 관악기와 타악기도 가급적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지난 호 프랑크와 생상스 편에서 프랑스 음악의 매력 가운데 하나로 소개 하였던 오르간도 포레는 주로 성악선율과 유니즌(unison)을 이루며 ‘바스 콘티누오’ 역할만 하게 하였다. 장대한 오르간의 울림보다는 마음 속에 조용히 울리는 하느님의 음성처럼, 오르간은 그저 레퀴엠의 성스러운 가사를 전달하는 성악 뒤에서 겸손하게 울린다. 이토록 절제된 관현악부는 선율의 모방 진행, 유니즌 진행 등을 통하여 성악부와 유기적으로 섞여 하나가 되고, 당연히 그 셈여림도 p와 ff범위 안에서 절제되어 있다.

포레는 프랑크처럼 매우 신앙심 깊은 가톨릭 신자였다. 포레의 레퀴엠 선율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같이 종교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가곡처럼 아름답고 서정적이다. 앞서 소개한 베를리오즈의 장대하고 극적인 레퀴엠과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로 포레의 레퀴엠이 심지어 이교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포레는 “사람들은 나의 레퀴엠이 죽음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누군가는 죽음의 자장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보는 죽음의 실체이다. 죽음이란 고뇌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구원이고, 영원한 평화로움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렇듯 포레의 레퀴엠은 죽음을 고통과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희망으로 본다.

인간에게 죽음은 숙명이지만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레퀴엠을 포함하여 아무런 음악도 소용없는 때도 있다. 이때 오히려 길거리의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유행가가 가슴에 와 닿는 수도 있다. 필자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동생의 소식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피에 예수’를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캣츠, 에비타, 오페라의 유령 등, 뮤지컬의 천재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가 1982년 자신의 아버지를 추모하며 작곡한 레퀴엠 중의 한 곡이었다. 후에 이 곡에 대하여 알아보니, 당시 ‘뮤지컬 작곡가 주제에 무슨 레퀴엠?’이라는 선입견에다, 너무도 달콤하여 위령 미사곡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들리던 소년 합창단과 사라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의 ‘피에 예수’가 어찌나 필자의 가슴을 쥐어짜든지…. 한참이 흘러갔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필자는 이제 위안을 줄 레퀴엠을 찾았다. 솔직히 그간 너무 평온해서 잘 듣지 않았던, 당시 ‘죽음의 자장가’라고 비난을 받았던, 그 포레의 레퀴엠이 떠올랐다. 차분하게 듣기 시작하였다. 제3곡 ‘쌍투스’에 이르자, 포레가 당대 바이올린의 제왕 유진 이자이(Eugène Ysaÿe)에게 ‘천사의 바이올린’이라고 했던, 그 바이올린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제5곡 ‘아누스 데이(신의 어린 양)’에서는 금관소리와 함께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는 합창이 비처럼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고, 이어지는 현악기 소리가 천상의 평화를 가르쳐 주었다. 이토록 어리석은 필자의 육신 위로 쏟아지는 포레의 레퀴엠은 마음까지 적셔주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훈계하듯 벼락같이 호통치는 레퀴엠이 아니라, 그저 잔잔하게 속삭이며 평화를 주는 포레의 레퀴엠! 일전에 몇 편의 영화에서도 들었던 포레의 레퀴엠은 그 영상과 함께 새롭게 들렸다. 지능적 연쇄 방화범과 소방대원의 대결을 그린 동명의 영화(2000년작)에 나왔던 바리톤 독창곡 ‘리베라 메(나를 구하소서)’도 영상보다도 더 절박하게 들렸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과달카날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 ‘씬 레드 라인(Thin Red



Thin red Line
Original Motion Picture Soundtrack
Music Composed by Hans Zimmer

Release Date: January 12, 1999
Run time: 59 minutes
Label: Sony Legacy
ASIN: B00000GV6B

Line)’(1998년작)에 나왔던 제7곡 ‘인 파라디숨(천국에서)’은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벌어질 끔직한 전쟁의 참화와 무수한 죽음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평화로운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삶과 죽음은 꼭 전쟁이 아니라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함께 하고 있다. 마지막 곡 ‘천국에서’를 들으면서, ‘세상과의 모든 이별에는 평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책 제목처럼 ‘대답 없는 질문(Unanswered Questions)’이지만, 필자는 대답 대신 기도하고 싶다. 부친께서 중환자실에서 2개월간의 힘든 투병 끝에 영면하셨을 때, 바바라 헨드릭스의 음성으로 들리는 ‘천국에서’의 가사는 그대로 필자의 기도가 되었다.🎧

In paradisum deducant te Angeli: 천사들이 그대를 천국으로 인도하도다:
in tuo adventu suscipiant te Martyres, 순교자들이 그대를 영접하여,
et perducant 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도다.
Jerusalem, Jerusalem, Jerusalem.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Chorus Angelorum te suscipiat, 천사들이 그대를 맞이하여,
et cum Lazaro quondam paupere, 한 때 가난했던 나자로와 함께,
et cum Lazaro quondam paupere, 한 때 가난했던 나자로와 함께,
æternam habeas requiem,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æternam habeas requiem.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지중해변 아름다운 산동네 이야기 - 카르멜 산 지역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지중해의 카이사리아에서 해변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서쪽, 지중해변을 마주하고 있는 해안가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녀온 야포-카이사리아 지역을 샤론 평야로 구분하고, 이 샤론 평야를 중심으로 북쪽지역을 아코 평야, 남쪽지역을 필리스티안 평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아코 평야의 대표적인 산, 카르멜 산 주변 지역을 다녀보겠습니다.

자동차로 15분 남짓 지났을까, 오른쪽 차창 바깥으로 산등성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카르멜** 산입니다. 카르멜은 케렘-포도밭, 엘-하느님. ‘하느님의 포도밭’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포도밭은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 할 때(1열왕 18)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은 땅에서 물을 여러 차례 길어와 번제물에 쏟는 것을 보면 물이 풍부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나무와 풀이 잘 자라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카르멜 산은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카르멜 산은 남북으로 약 26km 정도의 길이로 이어져있는데 가장 북쪽 끝, 지중해와 만나는 지역에 세워진 도시가 **하이파**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지중해 연안에 우리나라 포항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해변도시가 있는데 바로 그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546m인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고대로부터 거룩한 곳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카르멜 수도회가 시작된 산으로 하이파에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과 카르멜 수녀원이 있고, 내륙쪽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엘리야 예언자의 기적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에 카르멜 수도원이 있습니다. 현지 지명은 **무흐라카(Mukhraqa 불의 제단)**입니다. 이곳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리아에서 40km 떨어진 곳으로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산이기에 차에서 내리면 시원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려 수도원 뜰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바알 예언자를 밟고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이 더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이 휘어져있는데, 바알 예언자들을 많이 치다보니(?) 칼이 휘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경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2개의 돌로 된 제대가 놓여져 있는데요, 엘리야 예언자가 쌓은 제단,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를 의미합니다. 경당을 나와 성물방 옆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보면, 에스드렐론 평야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바닥에 주요지역을 향한 방위표가 나와있는데 동쪽에 보이는 나자렛 도시가 아주 반갑습니다. 가시거리가 좋은 날에는 헤르몬 산도 보입니다. 남서쪽 멀리에 희미하게 기둥 세 개가 보이는





카르멜산 항공사진



스텔라 마리스



스텔라마리스 숙소

데 방금 머물다 온 카이사리아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그가 바친 번제물에 주님의 불길이 내려온 후, 바알 예언자들을 키손천에서 처리하고 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하지요. 시종에게 일곱 번째 물어봤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 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1열왕 18,44) 하며 가뭄이 끝나는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저 곳에서부터 구름이 올라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르멜 산에는 향엽나무(공동번역성서: 상수리나무)와 올리브나무가 풍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들도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소들이 보이

는데, 이들의 주인은 드루즈인들입니다. 골란고원과 함께 드루즈인 마을이 많이 자리잡은 곳이 카르멜 산 지역입니다. 곳곳에 드루즈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올리브와 함께 바비큐 요리가 유명하니 점심식사 한 끼 정도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흐라카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다의 별’이라는 이름처럼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순례자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례를 시작할 때 주로 이곳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저의 주보성인인 소화데레사 성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은 경당에서 기도하는 순례는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간소하게 꾸며진 욕실이 조금 많이 불편하지만 이곳에서 하루 밤을 머물고 난 아침에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신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례자 숙소의 가장 큰 장점인 성지와 가장 가까운 것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장소가 주는 특별함이 있다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몇 지역 중에

하나가 이곳,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입니다. 본당 제대 아래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엘리야 예언자가 은수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성가정이 이집트에 피난을 갔다가 나자렛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렀다는 전승도 있는 것을 보니 그 특별함이 더욱 빛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수도원이 있는 도시가 하이파(Haifa)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해변도시가 텔아비브라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하이파입니다. 텔아비브와 마찬가지로 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이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대학과 같은, 유명한 공대인 테크니온과 종합대학인 하이파 대학도 있습니다. 인



카르멜산에서 보는 나자렛

텔, 구글 등 첨단 산업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 역시 하이파입니다.

하이파는 세 종교인들이 화합을 이루며 사는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그리스도교인, 유대교인, 이슬람교인이 서로 날을 세우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과 멀지 않은 곳에 바하이 가든이 있는데, 이곳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이 바하이 가든 앞에 저먼콜로니가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이 있는 거리에 분위기 좋은 식당과 카페가 있고 이곳의 음식도 맛있으니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예쁜 마을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르멜 산이 시작되는 지점 부근, 남쪽 지역에 **지크론 야콥 (zikharon Ya'akov)**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크론’이 기억이라는 뜻인데 ‘야콥을 기억하며’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콥은 성경에 등장하는 야콥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임스 메이어드 로스차일드의 이름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와인사업에도 뛰어드는데요,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고급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샤토 무통’과 ‘샤토 라피드’ 하나도 아니고 두 군데의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토 라피드 로칠드의 소유자인 제임스 로스차



지카론야콥거리

일드의 아들인 에드몬드 로스차일드가 지크론 야콥 마을을 만드는데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와이너리에서 고급 와인을 만드는 기술이 이 마을에 전수해주며 양조장도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와인 사업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마을 뿐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 건국을 할 때, 금전적으로 큰 후원을 한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와인을 만들어?’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구입한 와인이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를 다니며 많은 와인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와 견주어 봐도 뒤



엘리아예언자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 만드는 곳에서 직접 산 와인은 늘 맛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산 와인이 맛있게 느껴진 것은 이곳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마을 구경을 하며 과일과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와인양조장에 가서 와인 시음도 해보고 벤치에 잠시 앉아 따뜻한 지중해의 햇살을 느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볼 수 있을까요? 질병의 소문이 따뜻한 봄바람에 멀리멀리 날아가 버리기를 기도해 봅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와 교회의 신비

최대환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문학에서의 영성과 종교성

세상의 수많은 훌륭한 문학작품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심오하게 탐구한다는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영성적이고 종교적 차원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보이지 않는 실재에 대한 빛나는 상징을 통해서 초월성의 존재와 의미를 독자에게 열어 보이기도 하고, 사실주의적 진실성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가진 빛과 그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에 도달하게 합니다.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성취를 통해서 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는 묻혀있고 가려있는 인간존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각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부여되어 있는 사명에 대해 눈을 뜨게 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과의 만남은 때로는 독자의 생의 궤적을 바꾸게 할 만큼 인생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 매우 깊은 차원에서 영성과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성을 그저 고요함이나 단순함을 추구하는 미학적인 취향이거나 마음을 평정하게 하며 심성을 잘 돌보는 기예와 동일시하는 근자의 경향들은 영성의 근본 의미에 대한 오해입니다. 종교적 삶을 기능적이고 관례적인 사회적 실천에 국한 시키는 것 역시 너무나 표층적인 이해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과 종교를 인간 내면 심층에서 작용하는 진정한 존재론적 역동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과 종교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가 마치 허물을

벗듯 또 다른 존재로 ‘되어가는’ 여정을 지속적으로 걷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성과 종교를 본다면 극히 세속적이며 얼핏 보기에는 어떤 제의적 상징이나 종교적 표상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주제를 다룬 문학 작품들이 때로는 영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우 치열한 내적 투쟁과 새로운 삶을 향한 처절한 갈구를 실감나게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언뜻 보기에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피상적이고 상투적이며 쉬운 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한 작품이 전하는 영성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의 삶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품을 과연 영성적이고 종교적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어울릴까요?

베르나노스의 문학과 성사적이며 교회 공동체적 영성

문학에서의 영성과 종교의 문제를 깊이 사유할수록 베르나노스의 탁월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1936)를 포함하여 『악마의 태양 아래』(1926)나 『기쁨』(1929), 『무세트의 새로운 이야기』(1937), 『갈멜 수녀들의 대화』(1949) 등의 베르나노스의 대표작들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영성의 계보에서만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보편적 ‘세계 문학’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단지 앞서 말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영성적이고 종교적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베르나노스의 작품은 도스토예프스키를 연상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인간 내면의 모순과 신비를 탐구하며, ‘시대의

표징'에 대한 예언자적 직관을 보여주고 선과 악의 투쟁에 대해 소름끼칠 정도로 생생한 풍경을 담고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에게도 강한 호소력을 지니지만 그의 작품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중심 주제를 향합니다. 더구나 그 만남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토대에서 조명되고 있으며, 탈속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일치 를 향해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과 영성의 길을 닦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베르나노스 작품이 오늘의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각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문학에 드러난 영성이 '교회의 신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신비'로서의 영성이란 물론 하느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라는 근원적인 그리스도교적 종교 체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구체적으로 영성적이고 종교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비'안에 들어서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베르나노스는 각 등장인물들의 실존적인 상황과 심경을 어떤 미화나 안이함도 없이 그려내지만, 동시에 내면성의 추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은총의 체험을 위한 '교회의 신비'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가 베르나노스에 대한 방대한 신학적 성찰을 하며 그의 문학과 영성을 '삶으로 살아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약한 것은 참으로 올바른 통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나노스가 문학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교회의 신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성사'이며, 다른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가장 격렬한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자 어머니마한 집중력으로 독자를 압도하는 대목이 어린 아들이 죽고 하느님에

게 깊은 내적 분노를 가지고 살며, 남편의 부정과 딸과의 불화 속에서 어느새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백작부인과 주인공 시골 신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거의 50쪽 이상에 걸쳐 두 사람의 대화와 그 후 백작부인의 편지, 갑작스런 백작부인의 죽음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문학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안에 묘사되는 진정한 영적 투쟁으로서의 영성과 종교성은 유례없는 깊이와 강렬함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고백성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라 할 소설의 끝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작가는 위암에 시달리던 젊은 신부가 치료를 위해 도시로 나갔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급작스럽게 옛 친구의 방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그 정황을 친구가 사후 자세히 적어 평소 젊은 시골 신부와 친했던 토르시의 본당신부에게 보낸 편지로 소설을 맺고 있습니다. 친구의 편지는 신부의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손을 제 손 위에 얹으며 제 귀를 그의 입에 가까이 대라는 분명한 눈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여기 아주 정확히 옮겨 적었다고 믿습니다. ‘아무려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이니.’ 그런 후 그는 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라는, 리지외의 성녀 소화 데레사의 영성이 반항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은 참으로 감동적이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 임종을 위한 병자성사와 고백성사의 상황이며, 무엇보다 곧 임종하게 되는 주인공 신부가 평온하면서도 지극히 가난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이미 사제직을 떠난 친구에게 마지막 성사를 청하고 있다는 것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베르나노스가

드러내는 은총의 신비와 영성적 체험은 이처럼 성사가 지닌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는 ‘교회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베르나노스 문학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신비’의 또 다른 측면인 ‘공동체’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한 주인공인 시골 신부가 본당의 선익을 위해 여러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일들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 그들의 죄와 상처들에서 심오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노스는 ‘은총의 연대’와 ‘죄의 연대’를 섬세한 영적 감각과 명료한 문학적 표현을 결합시켜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감동적 인식으로 이끌어줍니다. 베르나노스는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회의 신비’를 문학을 통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낸 작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어린이다움’으로

‘교회의 신비’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 베르나노스가 언제나 자신의 동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백작부인과의 대화의 장면에 이어지는 편지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님 (...) 그 조그만 아기에 대한 절망적 추억이 저를 모든 것에서 별리하여 무서운 고독 속에 몰아넣어 두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어린이 하나가 이 고독에서 저를 끌어내 준 것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신부님을 이처럼 어린이로 취급한다 해서 새삼 감정 상하는 일이 되지는 않겠지요? 신부님은 정녕 어린이시니까요. 좋은 주님께서 신부님을 그대로, 또 영원히 지

켜주시기를!

(...) 희망! 바람 불고 쓸쓸하고 무섭던 어느 3월 밤에 그것은 내 두 팔에 안겨 죽었습니다... 내 뺨 위로. 나만이 아는 부위에 나는 그것의 마지막 숨결을 느꼈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얻어 온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 제 것인, 나만의 것인 희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받는 자와 다르듯, 철학자들이 같은 이름으로 운위하는 것과도 다른 희망이 말입니다. 내 살의 살과도 같은 희망. 제대로 형언할 수가 없군요. 제대로 표현하자면 아주 어린아이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작부인은 편지를 맺으며 ‘다시는 영원히’라는 말이 비로소 평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르나노스가 들려주는 ‘교회의 영성’은 신앙인의 길이 매일의 투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지만, 그러나 성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희망에서 어린아이가 주님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치유가 필요한 상실의 시대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는 젊은 날 겪었던 상실과 그로 인한 관계맺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외면적으로만 성장을 해야 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식의 3인칭 회고록이다. 그(하루키 혹은 와타나베)는 어른이 되면 저절로 주류에 편입될 줄 알았으나, 타인이 다가서면 뒷걸음치면서, 스스로 외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결계를 치고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마지막 장면, 그토록 원하던 여인(미도리)과의 전화 통화에서 “넌 어디에 있는 거야?”라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는 주변인으로 끝나고 만다. 이 질문은 그의 실체적, 물리적인 위치를 물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이 현재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녀 자신에게 정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있었다.

삶의 불행은 절대적 가치의 부재가 아닌, 비교우위에 서지 못한 상대적인 약자의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코로나 사태로 전면에 드러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줄을 세우려는 성과 제일주의의 피로

사회는 많은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양산하여 옆자리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동료가 더 이상 마음 편한 사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실의 시대에 억울함, 분노, 절망감은 어떻게 분출해야 할지. ‘두 팔을 아래로 내려 스스로 무장해제하면 누군가는 내게 귀를 열어 교감을 해주고 팍팍한 세상을 견뎌낼 힘을 주지 않을까?’ 라는 희박한 확률의 인도주의를 기대해보련다.

<아워 이디엇 브라더, 2011>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던 세 자매의 삶에 집과 여자 친구를 잃어버린 고문관 남동생인 네드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무미건조하지만 의미있게 그리고 있다. 결혼하고 애를 낳은 후 목석이 되어버려 바람을 피는 남편에게 힘들어하는 큰 누나, 유명잡지 기자이지만 남자에는 관심이 없고 출세에만 경도된 둘째 누나, 데면데면한 동성애인이 있지만 술김에 덜컥 임신해버린 막내 여동생. 사회 부적응자

네드는 상황파악도 못한 채 숨겨야 할 ‘말’을 흘리고 다니며 목표와 경쟁의식도 없이 조카와 유튜브에서 본 이상한 무술로 온 집안을 부순다. 체면이라는 굴레에 몸을 숨겼던 전형적인 대도시 가족들은 비로소 감춰졌던 진실의 힘을 깨닫고는 소통이라는 의식에 동참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부인에게도 이혼을 통고 받은 알코올 중독자 닉은 <에브리씽 머스트 고, 2010>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전부인이 집 열쇠를 모조리 바꿔버려 가재도구들과 함께 집 앞마당으로 쫓겨난 그는 살아남으려면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음주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했으나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게 된 물품들, 그리고 졸업 앨범 사진 옆에 적힌 ‘진흙 속의 다이아몬드’란 구절들. 5일간 펼쳐진 마당 세일을 통해 한참 어린 동네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웃집 여인과 옛날 고등학교 동창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섬세하고, 배려있는 소중한 존재였음을 새삼 깨닫는다. 중고물품을 파는, 일종의 버리는 과정을 통해 이전의 나날을 멀찍이서 관조할 수 있게 되면서 소중한 친구를 새로 얻은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젊은 호텔주인의 인터넷 사기 광고에 속은 줄도 모르고 부푼 가슴으로 인도로 향하는 7명의 영국노인들.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2011>은 여름판 황혼의 러브 액추얼리라 할 만 하다. 인생의 초겨울을 새롭게 맞이하려는 그들은 다시 직업을 갖게 되고, 수십년 만에 동성애인을 찾으며, 섹시한 새애



아워 이디엇 브라더
Our Idiot Brother, 2011
코미디 | 미국 | 90분



에브리씽 머스트 고
Everything Must Go, 2010
코미디, 드라마 | 미국 | 97분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
The Best Exotic Marigold Hotel, 2011
코미디, 드라마, 멜로/로맨스 | 영국 | 123분

인을 만나며, 부인에게 억눌렀던 자신의 자아를 되찾는다. 인생은, 아니 청춘은 희망과 내일이 있는 한 결코 늦었다 말할 수 없다. 이들은 도산 직전의 호텔을 인수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커플을 격려하며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찾게 된다. 너무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불안감에 그들은 이렇게 위안을 받는다. “결국엔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언터처블:1%의 우정, 2011>에서 물과 기름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지마비의 백인 부자와 할렘가의 흑인 간병인은 같은 시공간에서 교집합을 이룬다. 상하위 1%의 사회적, 경제적, 계급적 차이를 허물고 화학적으로 융합되어 서로의 속내를 드러내고 이해하며 공감하면서 ‘행복이란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발견하는 것’이란 결론을 이끈다.

<어나더 어스, 2011>는 교통사고로 한 가족을 파멸시킨 소녀 로다가 다른 평행우주를 통해 새롭게 자신을 보게 되면서 작성한 참회록이다. 형기를 마친 그녀는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 존에게 사과하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을 숨긴 채 그의 집을 무료로 청소해주는 것뿐이다. 평행우주처럼 지구와 동

시에 존재하는 다른 지구로 갈 승차권을 받은 그녀는 존에게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지만 그는 충격을 받고 분노한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그녀는 동시발생 현상이 사라지자 대신 존에게 기회를 주고 가족과 사고 이전으로 재회하게 한 후 달라져버린 또 다른 자신과 조우하게 된다.

영화사상 가장 멋진 탱고장면으로 유명한 <여인의 향기, 1992>는 허버드라는 미래와 맞바꿀 수 없는 자신의 신념때문에 고민하는 고등학생 찰리와 소진해버린 과거의 업보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갈등하는 맹인 퇴역군인 프랭크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디세우스가 전 쟁터에 나간 10여 년 동안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아버지처럼 항상 곁에서 돌보아주었던 친구 멘토. 아버지 대신에 학교 징계위원회에 출두하여 퇴학 위기에 빠진 찰리를 위해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재단이사들 앞에서 신념과 명예에 대해 설파하는 멘토 프랭크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에 대한 회한과 뼈저린 반성으로도 읽힌다.

시인 유하의 ‘세상의 모든 저녁’ 중 한 구절을 읊조린다.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기에 오래 견디어 낸 상처의 불빛은 그

다지도 환하게 삶의 노을을 읽어 버린다. ... 이마 하나로 허공을 들어 올리는 물새처럼 나 지금, 다만 견디기 위해 꿈꾸러 간다.”

다시 상실의 시대로 돌아온다.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나는 내 죽음에서 조금씩 더 멀어진다. 키즈키는 아직도 17살이다. 나오코는 21살... 영원히다.” 키즈키는 와타나베에게는 친한 고교 동창, 나오코에게는 연인이었으며, 17세에 자살했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상실감을 메우려했지만 나오코도 21세에 자살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지만, 시간이 멈춰져 특정한 시점에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한 후에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영원해진다. 그럼으로써 상실은 적분이 아닌 미분이 된다. 이제 교수직을 마칠 때까지 양 손의 손가락 숫자 정도의 헛수가 남았다. 각성하지 못한 채 흘러보냈던 지난 날들을 잃어버림이라고 표현한다면 너무도 가혹한 듯하여 앞으로의 삶에 가장 젊은 날이 되는 오늘은 제일 밝고 빛나는 날이 되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



언터처블: 1%의 우정
Untouchable, 2011
코미디, 드라마 | 프랑스 | 112분



어나더 어스
Another Earth, 2011
드라마, SF, 멜로/로맨스 | 미국 | 92분



여인의 향기
Scents of a Woman, 1992
드라마, 코미디 | 미국 | 157분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기도하고 일하라”: 성 베네딕토와 성녀 스콜라스티카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서양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베네딕토(St. Benedict, 480~547년)는 480년경 이탈리아의 노르치아(Norcia)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쌍둥이 누이 동생은 성녀 스콜라스티카(Scholastica, 5세기 말경)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후, 무절제로 흥청거리는 도시 생활의 삶에 충격을 받고 하느님만을 모시고 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동굴에 들어가 금욕생활을 하기로 했다. 성인은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마침내 로마의 동쪽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수비아코(Subiaco)에 있는 한 동굴에서 3년 동안 은수자 생활을 했다. 성인의 동굴에서의 생활은 성인을 처음 이곳으로 안내해준 로마노(St. Romanus)가 줄 끝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주는 빵으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침묵하며 기도에만 열중한 성인의 성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수비아코로 몰려들었고,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후일 베네딕토 성인은 로마 남쪽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로 이주해 대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서양 수도 생활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수도 규칙』을 저술했다. 성인의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라는 핵심 주제를 둔 규칙서는 모든 수도원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서양 수도원의 아버지’ 성 베네딕토

베네딕토 성인의 모습은 수도회의 규율집이나 목장을 들고 있고, 뱀이 든 성작, 빵을 문 까마귀, 지팡이, 막대기 다발 등과 함께 나타난다. 지팡이와 뱀이



로렌초 모나코, <성 베네딕토>(일부), 1414년, 패널에 템페라,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든 성작은 다른 수도원 수사들이 베네딕토 성인의 엄격한 규율에 반대하여 독을 먹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인은 지팡이와 뱀이 든 성작을 사용하여 수사들을 꾸짖었다고 전한다. 또한 성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작품으로 구체화 되었다. 주제로는 성인이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나 기적 내용이 담긴 이야기가 단연 많다. 성인이 기도하던 동굴로 줄에 매단 음식을 넣어주는 모습이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시덤불 위를 구르는 모습, 부서진 체를 수리한 기적 이야기 등이다.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를 체질하려다 체를 떨어뜨려 부서진 것을 보고 울고 있는 성인의 유모를 위해서 성인이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체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내용이다.

이탈리아 화가이자 카말돌리 수도회의 수사인 로렌초 모나코(Lorenzo Monaco, 1370경~1425경)는 성모의 대관식을 주제로 한 제단화에 여러 성인의 모습을 국제고딕 양식의 장식적인 느낌과 우아하고 곡선적인 요소가 뚜렷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성모의 대관식을 그린 다폭 제단화 아래 작은 프레델라(제단의 장식띠)에는 베네딕토 성인의 기적 이야기들이 그려있다. 그 가운데 성인이 호수에 빠진 한 사제를 구하는 이야기와 성인의 동생 스킨라스티카 성녀를 만난 이야기가 한 장면에 묘사돼 있다.

화면 왼쪽은 물에 빠진 사제를 구하는 장면으로, 왼쪽 위, 의자에 앉은 성인은 제자에게 축복을 주고, 가서 물에 빠진 사제를 구하도록 말하고 있다. 성인의 말에 따라 물에 빠진 이를 구하기 위해 호수로 다가갔고, 물 위로 걸어 그 사제를 구해 낼 수 있었다. 화가는 한 장면에서 같은 인물을 두 번 나타내어, 이야기를 서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자는 성인에게 호수에 빠진 사람을 구하라는 명령을 듣고 바로 물이 출렁이는 호수 위에 앉아 몸이 물에 반쯤 잠겨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그림 오른쪽에는 베네딕토 성인의 동생인 성녀 스킨라스티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다. 성녀가 1년에 한 번 오빠와 만나려고 하는 날, 그녀는 성령의 특별한 예시를 받고, 오래지 않아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만남이 있던 밤, 성녀는 수도원으로 돌아가려는 오빠에게 밤 새워 영적생활과 무궁무진한 천상의 행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오빠는 수도원의 규율을 어길 수 없어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져 심한 폭풍우가 닥쳤다. 이때 오빠는 성녀에게 “하느님께서 너의 뜻을 허락하셨구나” 말하며 “무엇을 했냐?”고 물으니, 성녀는 “오빠는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다”고 대답했다. 화가는 베네딕토 수녀회의 검은 수도복을 입은 성녀를 오빠와 밤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듯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죽음과 장례식>, 장 드 스타벨로의 채색 세밀화, 15세기, 콩테 미술관, 상티이

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도원 밖 지붕 위로는 어두운 하늘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 후 3일째 되는 날, 베네딕토 성인은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열핏 창밖을 내다보니까 동생 수도원에서 백색으로 빛나는 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즉시 천국으로 향하는 동생의 영혼임을 확신했다. 이 까닭에 스킨라스티카 성녀의 상징물은 비둘기가 되었다.

‘베네딕토 수녀회의 첫 번째 수녀’ 성녀 스콜라스티카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가 쓴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활과 기적에 관한 대화집』에서 베네딕토 성인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남매는 두 수도원의 가운데 있는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났다. 성녀는 오빠와 함께 자매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마음의 양식을 나눌 담화를 나누곤 했다. 이렇게 성녀와 오빠와의 밀접한 관계 이야기는 그림으로도 표현된다. 화가들은 성녀의 모습을 대부분 오빠와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 화가 지롤라모 투로파(Girolamo Troppa, 1636-1710)의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로사리오의 성모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인 각각에게 목주를 건네주고 있다. 베네딕토회 수도복 차림의 두 성인은 성모자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왼쪽에 베네딕토 성인 발 아래에는 부리에 빵을 물고 있는 까마귀가 있는데, 이것은 성인이 동굴에서 기도할 때 까마귀가 성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오른쪽에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두 손을 가슴에 올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 그녀의 아래에 아기 천사는 한 손에 비둘기를 들고 있는데, 성녀가 죽은 후 베네딕토 성인이 보았다는 동생의 영혼을 상징하는 비둘기이다. 마치 성녀가 천상에 오를 것처럼 그림은 천상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 역시 오빠 베네딕토 성인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자랐다. 아름다웠던 성녀가 나이가 차자 많은 청년 귀족이 청혼했지만, 성녀는 혼담을 물리쳤다. 그 까닭은 이미 성녀는 오빠와 같이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성녀의 깊은 신심에 탄복한 아버지는 그녀의 수도 생활을 허락하게 되었다. 성녀는 자기 몫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빠의 수도원이 있는 몬테 카시노에 작은 초막을 세우고 오빠에게 지도를 받으며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 점차 성녀와 함께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베네딕토 성인은 이미 자신의 대수도원에서 실행해 온대로 여동생의 수



지롤라모 투로파, <성 베네딕토와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함께 있는 로사리오의 성모>, 1692년,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 치타두칼레, 이탈리아

도원에도 일정한 회칙을 주었다. 이렇게 베네딕토 수녀원이 설립되었고,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이 수녀회의 첫 번째 수녀이자 원장이 되었다. 그녀는 말과 행동으로써 덕행의 길을 걸으며, 언제나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자매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직장사목팀 2021년 봉헌금 기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에서는 그동안 견진성사 · 세례성사 등 주일에 함께 미사를 봉헌하며 모여진 봉헌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기부해왔었습니다. 지난 1월 3일 본부장 신부님은 직장사목팀 교우회를 대표해서 2021년 12월까지 조성된 봉헌금 1,623,475원을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ACN KOREA)'에 전달하였습니다.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ACN KOREA)'는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톨릭 교회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교우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금요미사

바쁜 일상 안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미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일 시 : 매주 (금) 12:15
- 장 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명동밥집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II 고린 10장 17절)



나는 나눕니다.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눈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기쁜 소식을,
이웃을 위해 시간을,

그리고 배고픈 이들과
따스한 한 끼를 나눕니다.

나누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mdbj.or.kr)



The Dove

The dove is the symbol of the Holy Spirit. When Christ was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a dove descended on him, according to Matthew 3,16 and Mark 1,10. The dove is sometimes depicted with an olive branch in its mouth as a symbol of peace. It also symbolizes God's grace.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